

지역 매 아리

삼례·봉동생강골 특화시장 발돋움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김제

김제시 전통시장

복합청년물 조성사업 선정

김제시는 김제전통시장이 2019년 복합 청년물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복합청년물 조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내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활력제고와 예비 청년상인들의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만들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2018년 특성화첫걸음시장으로 선정된 김제전통시장은 고객신뢰, 결제편의, 위생·청결 개선, 안전·화재관리, 상인조직 강화 등 전통시장 5대 혁신 과제 개선을 통한 특성과 기반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복합청년물 조성사업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김제전통시장은 향후 2년간 복합청년물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 점포와 공용공간,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여 청년상인들을 집중 육성하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김제지렁이 축제' 등 지역 축제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객의 유입확대, 지역 특화 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김제전통시장이 복합청년물 조성을 통해 김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성장하고, 시장의 매출증대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테마버스 가족 맞춤형코스 운영

완주군 테마버스가 5월 가정의 달에는 가족을 위한 코스로 운영된다.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임재근)는 5월 한 달 동안 완주테마버스를 가족을 위한 기획코스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매주 토요일에 운영하는 정규코스에 변화를 줘 5월의 화목화목한 토요일을 주제로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주말 가족 나들이에 맞는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획코스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출발해 대아수목원, 고산참포마을, 놀토피아와 힐조타운을 경유하는 코스로 운영된다.

5월의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부모와 아이들이 각종 체험을 즐기고 만끽할 수 있는 맞춤형코스다.

테마버스는 완주시티투어 사전예약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3000원(성인기준)이다. 자세한 정보는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블로그 또는 (사)마을통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다. 기타 예약과 관련한 사항은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063-290-3930)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중기부 공모사업 2곳 선정 6억5800만원 확보

완주군의 삼례시장, 봉동생강골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9일 완주군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에 삼례시장, 봉동생강골시장 2곳이 선정돼 국도비 6억58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곳의 시장에는 군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11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우선 삼례시장은 특성화 첫걸음 시장 기반조성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

비 2억6000만원이 투자돼 시장브랜드 개발, 서비스 특화, 이미지 개선, 상인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발돋움할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봉동생강골시장은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 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8억8000만원이 투자돼 생강을 테마로 한 특화된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세부사업으로 생강 테마거리 조성, 생강 테마축제, 특화먹거리 개발, 웰빙 특화매장 조성 등을 추진해

자생력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구축한다.

앞서 봉동생강골시장은 지난 2016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생강공동관매장 조성 및 기획상품 개발, 생강테마축제를 진행해 상인회합 및 시장 이미지 개선을 추진해왔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문화행사지원 등 지속적인 투자로 추진하고 있다"며 "찾고 싶은, 찾아오고 싶은 시장을 만들어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민들이 하나 된 제54회 완주군민의 날 행사가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완주군민의 날, 10만인 하나되다

5000여명 참석... 군민대상 시상·문화공연·민속경기 등 다채

완주군민들이 하나 된 제54회 완주군민의 날 행사가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9일 완주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완주군민의 날 행사에는 박성일 완주군수, 최용범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최동원 군의회 의장, 자매결연도시인 칠곡군, 서대문구청 등과 명예완주군민, 군민대상 수상자,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평양초등학교와 K-POP 퍼포먼스 팀 '힐리퀸'의 식전공연으로 기념식, 칠곡군 문화교류 공연, 300인의 노래교실 회원

특별공연, '완주다운 완주 자랑스러운 완주군민' 특별 퍼포먼스, 민속경기, 군민 화합 한마당으로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완주군정 홍보관을 운영해 완주군의 중점 추진정책 12개 분야를 군민들에게 상세히 공유하면서 군정에 대한 공감도를 높였다.

또한, 완주의 찬가를 함께 부른 노래교실 특별공연과 퍼포먼스를 통해 완주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난 4월 선정된 7개 분야의 완주군민대상 수

여가 있었으며, 군민화합 한마당에서는 예심을 통해 본선에 진출된 12개팀의 열띤 노래경연과 남친, 오로라, 현진우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군민들의 화합의 정을 만들었다. 박성일 군수는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최고의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해준 군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군정최고의 가치를 일관되게 '군민행복'으로 삼고 '완전한 고을', '대한민국 으뜸 행복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는 9일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민·관 협력기관으로 구성된 2019년 김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위원장 전대식 부시장)를 개최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관련 교육기관, 경찰·사법기관, 아동·여성 관련기관, 학계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었고, 지역사회 아동·여성보호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통한 폭력 피해 예방 및 지역안전망을 구축하여 심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아동과 여성 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 및 정보교류 자리로 관내 지역안전망 현황, 2018년도 사업실적과 2019년 계획 보고, 지역연대 활성화 방안과 유관기관 관련사업

등에 대해 의견교환 및 자유로운 토의로 진행되었다.

2019년 사업으로 아동·여성폭력 관련 서비스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과 피해 예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실무사례협의회 운영, 폭력 방지 캠페인 전개 및 예방교육 등 아동과 여성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시켜 사업을 활성화하고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전대식 부시장은 "이번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회의 시 논의된 내용을 사업에 반영해 아동·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이 근절되고 아동·여성 등의 가정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직소민원의 날 운영 시민들 호평

박준배 김제시장, 매주 월요일 불편·고충 해결

박준배 김제시장은 시민과 소통행정 실현을 위하여 민선 7기 취임한 후부터 매주 월요일 '직소민원의 날' 운영으로 시민의 불편과 고충의 해결사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김제시 금산면 원평 명산아파트 93세대 178명 숙원사업인 상수도 급수시설 설치지원사업 해결 명산아파트 주민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기도 했으며 어르신들의 편익을 위한 박약국 앞 버스승강장 설치 등 크고 작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2018년 7월 10일 시작 현재까지 40회 449건의 크고 작은 시민의 소리

를 편안하고 격의없이 직접 청취하여 시민소통행정을 추진, 시민에게 낮은 자세로,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민공감행정을 실현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직소민원의 날' 운영이아말로 시민과 함께 대화를 통해 시민이 주인 의식이란 입장에서 시정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청취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경제도약 정의로는 김제시 행정을 펼쳐나기는데 단단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시민과 굳게 약속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성덕면, 찾아가는 발마사지 교실 큰 호응

김제시 성덕면(면장 서상원)이 운영하는 '행복학습센터 발마사지 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심지에 있는 시설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성덕면 나시마을 경로당에서 2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인기에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과정은 발마사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 내 어르신들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여 신체기능 향상을 통해 건강한 수명연장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교육은 4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강좌별 일정에 맞춰 총 20회(매주 목

13:00~15:00)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수강료 및 재료비는 무료로 운영된다.

서상원 성덕면장은 "발마사지 교육을 통해 면민들이 농사일로 지친 몸의 피로를 풀어 생활의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면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